

## 세종시, 지역문화 기반 조성하는 문화재생공간 마련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예술과  
2022.8.12.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전략본부  
지역균형발전과  
2022.8.25.



청자장 목욕탕 내·외부 전경

출처: 세종시, (2022), 청자장 목욕탕,  
복합문화공간으로 문 열다, 8월 25일 보도자료.

### 폐공장을 리모델링한 복합문화공간 ‘조치원 1927’ 개관

세종시는 조치원을 원도심에 방치된 옛 한림제지 공장을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한 ‘조치원 1927’의 개관식을 지난 8월 12일 개최하였다.

옛 한림제지 공장은 일제강점기인 1927년경 잠사(蠶絲) 생산을 위한 제사공장으로 세워졌으나 1960년대부터 한림제지 공장으로 40년 동안 가동되다 2000년대 중반부터 운영을 멈춘 뒤 방치되어 왔다. 세종시는 근현대사 가치를 지닌 옛 한림제지 공장을 지역과 상생하는 문화거점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통해 시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한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치원 1927은 150석 규모의 공연·전시가 가능한 다목적홀부터 이용자들을 위한 카페와 정원, 가상현실(VR) 체험공간 등을 함께 운영하여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상생에 필요한 전문성을 위해 민간운영자로 ‘정동 1928’을 선정하였다.

향후 조치원 1927은 기존 문화재생공간인 문화정원·청자장 등과 연계한 세종시 원도심의 문화·예술 중심지로서 전시 및 공연 등을 통해 지역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대학이나 예술인 등과 협업하여 지역예술인 양성에 나설 예정이다.

### 청년 및 예술가 위한 문화놀이터 ‘청자장 목욕탕’ 새 단장 마쳐

세종시는 지난 8월 26일 주민과 청년, 예술가들을 위한 문화놀이터이자 복합문화공간인 ‘청자장 목욕탕’을 열었다. 조치원을 상리에 위치한 청자장 목욕탕은 1985년부터 30년 동안 방문객의 쉼터이자 지역주민을 위한 목욕탕으로 자리를 지켜왔다. 이에 총 사업비 65억 6,000만 원을 들여 지난 2020년 12월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였고, 2021년 12월 준공 이후 운영을 위한 인테리어와 물품구입 등을 준비해 왔다. 1,443m<sup>2</sup>의 부지에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로 리모델링을 마친 청자장 목욕탕의 1층은 북카페, 2층은 창작공작소, 3층은 창작스튜디오 및 게스트하우스, 4층은 공동휴게공간과 옥상정원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쥬로컬스티치’를 운영자로 선정하여 공간 운영을 맡겼다.

시는 청자장 목욕탕이 조치원 내 다른 문화재생공간인 조치원 1927, 문화정원 등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중심지로 발돋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